

한 세기를 넘기면서

이 용 남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세월에 한 해를 회고해 보는 일은 흔한 일이지만 올해는 새로운 세기, 새 천년이 겹치다 보니 정치성, 상업성 흥분에 편승하여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도서관계에 있어 지난 한 세기는 엄청난 역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 그 감회를 술회하기가 벅찬 것 또한 사실이다.

큰 즐거만을 되돌아 보건대, 사회적 담론거리가 되지 못했던 도서관 문제는 개화기 전후의 일부 선각자들에 의해 그 가치가 조명되고, 서구의 근대적인 도서관 개념과 용어가 도입되면서 여러 종류의 근대 도서관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그때가 20세기 초반이었던 것이다.

20세기 중반에 짚어 볼 수 있는 일은 사서직 교육제도일 것이다. 조선도서관학교로부터 시작되었던 사서교육 과정이 1950년대에 드디어 대학에 입학하여 학문 차원으로 승격한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간주할 수 있으리라. 오늘날 대학에서의 전문직 양성은, 비록 양적 팽창 일변도라는 비판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동안 우리 도서관계 발전의 분수령을 이루었음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컴퓨터 기술이 도서관에 접목되어, 과거시대의 도서관 업무 스타일을 바꾸고 도서관 기능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그 끝을 짐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참으로 우리 도서관 역사에 있어 지난 한 세기의 의미는 엄청났다고 생각한다. 한 세기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기고 미래를 생각해보노라니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지난 한 세기의 의미가 미래의 도서관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몇년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요즈음이기도 하나, 우리 앞에 놓여질 가장 큰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예상된다.

첫째는, 지속적인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의 과제일 것이다. 테크놀로지의 끊임 없는 개발이 지금까지와 같이 도서관의 업무 개선과 서비스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를 하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 천년 내려온 도서관이란 기관의 정체성을 흔들어, 새로운 기능의 기관으로 대치되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인가? 또한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이 가장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리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식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이란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장치가 사회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냐의 과제일 것으로 생각한다. 수 천년 도서관의 역사는 곧, 일부에게만 제한되었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와 그 시스템이 만인에게 확대되는 국가사회의 공공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 온 과정으로서 압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의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와 질서가 역사 발전의 기축을 형성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많은 역할이 민간부문으로 대체되고 시장논리에 의한 정보의 상품화가 촉진될 것 같다. 이러한 사회에서 지식정보 접근의 평등권이란 가치가 존중될 것인가, 그리고 도서관이 그 이상을 어떻게 구현하여야 할는지 등, 상대적으로 벌어지기 쉬운 지식정보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 도서관 철학의 근간을 시험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한 세기를 가로질러 과거를 역사에 묻고, 또다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하는 우리 도서관인들은 다같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 시대에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다.